

## 상춘 賞春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꺾여 있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프르도다 ...  
和風이 건듯 부려 綠水를 건너오니,  
清香은 잔에 지고 落紅은 옷새 진다.  
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

얼마 전 고전문학을 처음 접하는 아들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내민 자료들 중에 잇고 있던 賞春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작 제가 잇고 지내는 것은 상춘곡이 아니라 그 속에 배어 있는 내려놓음(放下)과 물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넉넉함(餘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시절 봄이 오면 동산 땃등에 누워 온몸에 봄을 담고 수많은 얼굴을 하면서 자유자재하며 흘러가는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과 산과 들과 바다가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자랐고, 하느님은 제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점점 계절의 오고 감에 무뎌지고, 타성에 젖으면서, 하늘을 바라다보는 일도,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미뤄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부딪치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다잡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되물어봅니다. 아마도 놓지 못하고 잡으려 헛힘을 쓰면서, 눈앞에 주어진 일에 쫓기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스러져 간 것일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가든, 시절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몫은 스스로에게 있는데도 말입니다.

2~3년을 정신없이 살던 저는 지난 연말 천호 천산재에서 모

든 것을 내려놓고 먹고 자고 걷고 시간 나면 묵상하고 기도하며 5일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나다.

무심한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의 다사로운 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살아오신 날들과 소명에 대해 빈 종이처럼 받아들이고 저를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천호가 준 방화와 여유와 적요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홀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 주는 구방심(求放心)은 내려놓음과 넉넉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절에는 더 멀리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서 마음을 모으고 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봄입니다.

온몸으로 봄을 느끼고 완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겨울이 우리에게 준 준엄함에 감사하고 결실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딸과 앞뜰에 봉선화, 채송화, 해바라기와 벗이 먼 나라에서 보내 준 구근도 심고, 상추, 고추, 깻잎 모종도 심어야겠습니다.

어린 시절 봄비를 맞으며 돌아나던 떡잎과 피고 지던 난초와 나팔꽃을 다시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봄과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 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법무법인 수로 대표 변호사  
한국고전문문화연구원 이사장

김 병 문

## | 연구원 소식 |

### 2014년 3차 운영위원회 개최 (3.20)

운영위원회가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변주승, 이미경, 최우영, 한명수 운영위원, 김건우 평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2014년도 뉴스레터 필진 및 문화강좌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으며, 2014년도 사업 중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4차 운영위원회는 4월 16일(수)에 열릴 예정입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설명회 참가 (3.21)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난 3월 14일에 선정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사업의 사업설명회에 연구원 이동학 행정실장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진행될 사업의 개괄적인 설명과 사업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수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 회원 소식

#### 변주승 부원장 전주대학교 학생취업처장 임용

우리 연구원의 부원장 겸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변주승님이 2014년 3월 10일자로 전주대학교 학생취업처장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변주승 부원장은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서 학과장, 박물관장, 고전학연구소장 등 굵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학과 및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주대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학생취업처장이 되어, 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전주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 보며 회원분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의 갈채를 보냅니다.



### 4월 문화강좌 안내 (4.26)

4월 26일 토요일 16시부터 심옥숙 박사의 “카프카의 변신 – 가족이라는 이상하고 위험한 관계”라는 주제로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문학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2014년 첫 문화강좌이자 새로운 장르의 첫 문화강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전 주위에서 봄을 만끽하시다가 강좌를 들으시면 금상첨화일거라 생각합니다.